



# 일일 벤처 체험기

이번 호 일일 벤처 체험에는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프로모션 2본부 기획 1팀 신지현 대리의 씩씩한 동생 신기수 씨가 참여해주었습니다.



## 꿈을 이루는 벤처,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체험기

‘빛나는 조연’이라는 표현이 있다. 카메라에 크게 잡히지 않아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 알차게 제 몫을 하는 사람. 뜨거운 함성이 태동한 광화문 거리에도 빛나는 조연이 있었다. 바로 ‘월드컵’이란 주연을 위해 6개월여 이상을 치열하게 준비해온 마케팅·프로모션의 선두기업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6월 12일, 대한민국과 토고의 일전을 앞두고 신지현 대리의 든든한 동생 신기수(27) 씨가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았다.



##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발견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사옥 유니원 빌딩. 1층 로비에 들어서니 넉넉한 웃음의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준다. 작은 안내판을 보고 누나 신지현 씨의 내선번호를 누르는 것으로 신기수 씨의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체험이 시작됐다.

“우와, 여기 ‘피버노바’가 있네요. 역시 2002년 대규모의 거리응원을 준비했던 회사 답습니다.”

자칭 축구 마니아인 신기수 씨. 어제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월드컵 세 경기를 마라톤 시청했다며 ‘피버노바’를 꺼내든다.

지난 2002년 시청 앞을 뒤덮은 붉은 물결은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뒤에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었다. 안전을 위해 1,000여 명의 경호요원을 배치하고 대형 전광판과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등 총체적인 이벤트를 담당한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감동과 환희가 높은음자리표를 그리며 메아리치던 축제는 이렇게 묵묵히 땀 흘린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신지현 대리가 일하고 있는 3층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에 예정된 ‘광화문에서 열광하라’ 프로모션 현장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신기수 씨. 기말고사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도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냐며 기꺼이 체험을 결심한 그답게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국가의 중요한 행사는 거진 만날 수 있다. 최근의 예만 들어도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식후 행사 진행 그리고 2004년 제1회 포항 불빛축제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운영대행까지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는 프로모션 마



케팅 산업에서 업계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유니원 LA사무소를 설립하여 글로벌네트워드를 구축함과 동시에 탄탄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경영기획팀 최현미 씨의 설명이다.

굵직굵직한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략적 구조는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이는 지난해 300억 매출을 돌파,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기도 하다.





## 생생한 PT 리허설의 현장

최근 몇 년 동안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는 경쟁 PT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말은 바로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를 위한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핵심 업무가 바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경쟁 PT를 통해 수주, 실행하는 일인 만큼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하는 통과시험인 셈이다.

마침 지하 1층 총회의실에서 PT를 위한 리허설이 있어 신기수 씨가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그 시작은 PT를 위한 장비 설치. 이를 위해 일반인들에겐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6층에 위치한 재무관리팀으로 이동했다.

재무관리팀은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법인카드와 노트북 등 중요



물품의 관리도 함께 맡고 있는 부서이다. 보다 생생한 체험을 위해 신기수 씨가 직접 대어 대장에 이름을 적고 노트북을 빌린 후, 경영기획팀을 담당하는 박희중 차장의 도움을 받아 설치를 마쳤다.

“회의실로 직원들이 들어오고 PT가 시작되자 마치 제가 발표자인 것처럼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엔 자유로운 복장과 활기찬 분위기에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답다고 생각했는데 치열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바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곧 취업을 앞두고 있어 더욱 유심하게 PT과정을 지켜봤다는 신기수 씨.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했다는 박희중 차장의 말에 힘 있게 고개를 끄덕인다.



## 광화문에서 열광하라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프로모션 본부는 제품 및 서비스의 PR 프로모션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담당한다. 프로모션 본부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담당 PM(Project Manager)을 정해 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클라이언트 및 관련 업체와 미팅을 갖고 전체적인 전략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PM은 그야말로 프로젝트의 총지휘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프로젝트 '광화문에서 열광하라'의 PM은 바로 프로모션 2본부 기획 1팀의 신지현 대리이다.



독일월드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달려왔다는 신지현 씨, 내일 토고와의 결전을 앞두고 행사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외근 나가는 그녀와 동행했다.

“지난 5월 23일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교보빌딩 앞에서 ‘광화문에서 열광하라’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독일까지 직접 가진 못해도 월드컵을 생생하게 즐기며 태극전사를 응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죠. 실시간으로 축구 관련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와 시민들이 직접 응원 메시지를 적어 만드는 ‘태극물결’ 그리고 거대한 ‘드림볼’ (축구공과 각종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을 결합한 조형물) 등이 있어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응원의 심장’이 된 광화문 거리. 그리고 지금까지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태극물결’. 신기수 씨도 직접 태극기 모양의 종이에 승리기원 메시지를 적었다. 이 간절한 물결이 광화문을 넘어 세계로 가는 태극전사와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 “Dreams come true!!”

프로모션 2본부 기획 1팀 신지현 대리의 동생 신기수 씨

“사실 광화문 거리에 있는 조형물 ‘드림볼’은 제 동생이 지은 이름이에요.”

신지현 대리의 깜짝 발표에 신기수 씨가 쑥스러운 듯 웃는다.

“어느 날 누나가 축구공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마땅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며 고민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2002년의 ‘꿈은 이루어진다’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드림볼’로 하자고 했죠.”

제안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결정될 줄은 몰랐다는 그, 더구나 오늘 회사까지 오고 보니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와 자신의 인연이 보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올 9월 코스모스 졸업을 앞두고 기말고사와 면접을 동시에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신기수 씨. 맘에 둔 회사가 있는데 잘 될 것 같라며 씩씩하게 포부를 밝힌다.

“기사가 나갈 때쯤이면 어느 정도 월드컵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한 누나와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꿈도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개인적으로 취업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저의 꿈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에, 그리고 그의 꿈에 건승을 기원한다.

